

아련한 첫사랑, 아름다운 무등산에 물들다

단편극영화 '초련' 시사회

희망문화컴퍼니 제작, 이정국 감독
광주영상미디어클럽서 활동
순수 아마추어 광주시민 위주 캐스팅



이정국 감독

'무등산국립공원 정거장'을 향해 1187번 버스가 산비탈을 오른다. 광주를 누비던 녹색 버스가 스크린에 나오자 반가움도 잠시, 화면은 이내 무등산을 배경으로 한 노을로 채워진다. 풍광은 진경산수 같기도 했으며, 한쪽의 수채화 느낌도 물어났다.

20일 저녁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단편극영화 '초련' 시사회. 영화는 희망문화컴퍼니(대표 임준형)가 제작했으며 감독은 이정국이 맡았다.

이날 시사회에서는 무등산의 아름다운 풍광을 화면을 통해 볼 수 있었다. 풀베레 소리와 산 중턱 갈대들의 서걱거리는 소리 등 무등산의 '속살'이 오롯이 스크린에 담겼다. 관객들 가운데는 등산복 차림을 한 이들도 있어 영화 소재인 '무등산'과 맞물려 눈길을 끌었다.

빛고을의 상징 무등산은 광주 역사 그 자체이며, 무궁무진한 문화자원을 소유한 명산이다.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초에는 국립공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첫 재인증을 받기도 했다. 지난 9월에는 57년만에 정상부가 개방돼 시민들 품으로 한걸음 더 다가왔다.

"원래는 장편을 만들려 했다가 단편으로 방향성을 바꿨습니다. 우리 지역에 '무등산'처럼 아름다운 선산이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기 위해 콤팩트하게 단편을 제작했어요."

이날 시사회에서 만난 이정국 감독은 기획 의도를 이렇게 말했다. 중앙대 연극영화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를 역임한 그는 장편 '편



무진(김민선 분)과 준기(이해성 분)가 무등산 입석대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장면. <희망문화컴퍼니 제공>

지'로 청룡영화제 최고홍행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감독은 광주와 인연도 깊다. 5·18을 조정한 단편 '세 남자의 오월'은 현재 넷플릭스에서 상영 중이다. 지난 21년 선보인 장편 '아들의 이름으로'는 5·18민중항쟁 40주년 공식 기념작으로 선정됐다. 광주의 5월 등에 천착해 온 연장선에서 이번에는 무등산을 모티브로 한 작품을 만들게 됐다.

그는 10여 년 전부터 순수 아마추어 광주 시민들을 캐스팅해 영화를 촬영했다. 광주영상미디어클럽에서 활동하며 영화에 관심있는 시민들을 섭외하거나, 공개오디션을 통해 주연배우를 선발한 것.

이번 작품의 PD이자 작중 '극단 감독' 역으로 출연한 임준형은 "광주의 어머니와 같은 무등산은 예로부터 시민목객들을 비롯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며 "이번 작품도 영화 애호가뿐 아니라 광주 시민들에게도 신선한 영감을 물론 자부심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작품의 초반은 일반적인 '사랑' 이야기와 유사했다. 그러나 배경을 무등산으로 한 덕분에 신박조의 느낌을 희석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산 중턱에서 내려보는 광주의 전경, 드론 캡으로 촬영한 입석대의

주상절리는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다.

영화는 작은 극단에서 햄릿 역을 맡은 주인공 명준기가 버스에서 우연히 희귀병 '뇌신경 인플레'에 걸린 이무진을 만나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다. 제목처럼 초련(初戀·첫사랑)에 물들어가는 젊은 남녀의 풋풋함부터 중견 배우들의 연연은 장별재와 입석대에 핀 홍매화 등과 어울려 잔잔한 울림을 선사했다.

감상 포인트를 묻자 임 PD는 작품 속 지역적 상징들을 찾는 재미를 꼽았다. 가령 여배우의 극 중 이름을 '무진'으로 설정한 것은 무등산의 옛 명칭(백제·무진약)에서 유래했다는 식이다.

시사회장을 나서며 옛 전남도청 뒤편 저 멀리 자리한 무등산을 잠시 바라봤다. 대설주의보가 발효될 만큼 눈발이 많이 내리는 저녁이라 그 자태는 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희미하게나 설산(雪山)이 되어가는 무등의 모습은 영화 속 아련한 첫 사랑이 현현한 듯 했다.

한편 영화 '초련'은 광주시와 광주문화재단의 광주형 문화메세나운동 기부금 매칭 지원사업으로 지원받아 제작됐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빛보라뮤지컬팀이 '사운드 오브 뮤직' 공연을 앞두고 연습을 하고 있다. <빛보라뮤지컬팀 제공>

인생의 여정, 기도로 어려움 이겨내자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22일 여수 뮤지컬하우스...연출 류영신

자유롭고 음악을 사랑한 마리아 선생, 그러나 교장선생님은 너무나 자유로운 그녀가 걱정이 된다. 교장선생님은 그런 마리아를 아이들이 일곱 있는 퇴역 장교 폰 트랩가의 가정교사로 보낸다.

아내가 죽은 뒤 마음을 담은 폰 트랩 대령은 7남매를 홀로 키운다. 군입대해 그는 군대식으로 엄격하게 대하지만 사랑에 굶주린 아이들은 아빠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일부러 말썽을 피운다.

아이들의 이런 행동의 이유를 알게 된 마리아는 음악을 통해 위로와 사랑을 주기로 결심한다. 아이들도 점점 마리아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폰 트랩 대령은 약혼녀를 만나러 비엔나로 떠나고, 마리아는 아이들과 함께 등산도 하며 노래가 기도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이 22일 오후 4시 여수 뮤지컬하우스 공연장(전남 여수시 울촌면 두언길 106-31)에서 펼쳐진다.

이번 작품은 빛보라교회(담임목사 임형

준)가 주축이 된 여수뮤지컬마을이 제작했으며, 빛보라뮤지컬팀이 출연한다. 연출은 류영신 감독. 음악 교사 출신인 류 감독은 지금까지 '켓츠', '레미제라블', '오페라의 유령', '엘리자벳', '지킬 앤 하이드' 등 다수 작품을 연출했다.

'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은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가족뮤지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번 작품은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정면으로 맞서며 찬양과 기도로 이겨나가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류 연출은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이겨냈으면 한다"며 "이번 '사운드 오브 뮤직'을 통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연이 끝난 후에 김인수, 이수진 씨의 결혼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토요상설 '타악연희원 아귀'가 공연 '변검사자 탈춤사건'을 공연하는 장면.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변검사자 탈춤사건'

국립남도국악원, 23일 진안당...타악연희원 아귀 출연

중국의 '변검술'처럼 얼굴이 변하는 사자가 탈춤을 추는 이색적인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남도국악원이 오는 23일 오후 3시 국악원 대극장 진안당에서 '변검사자 탈춤사건' 초청 공연을 연다.

2006년 창단한 타악연희원 아귀가 출연, 대북과 모듬북, 난타북과 전통 타악기, 서양 타악기 등 연주를 들려주며 특히 사자춤과 변검을 융합해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등으로 얼굴이 변하는 사자탈춤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변검사자 탈춤사건'은 서커스단에 소속된 변검 사자가 단장의 황포로 서커스단을 탈출하

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다. 사자를 잡으려는 악독한 서커스단장을 피해 변검사자의 유일한 친구 연흥이 사자를 구하는 이야기를 담았다. 판소리와 삼도돌리기(열두발 삼도), 비나놀이, 용기놀이를 비롯해 타악연주 등을 극에 접목해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가족연희극이다.

국립남도국악원 관계자는 "2023 토요상설 '국악이 좋다'는 이번 공연이 마지막이며, 내년 3월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다"며 "2024년은 국악원 개원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풍성하고 화려한 공연 라인업을 준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플루트로 떠나는 클래식 여행

플루티스트 노신영, 22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프랑스, 오스트리아를 비롯해 독일음악, 미국 재즈 등을 플루트 연주로 감상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플루티스트 노신영(사진)이 기획한 클래식 공연 '세계로 떠나는 클래식 음악여행: FLUTE'이 오는 22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광주문화재단 청년예술인창작지원사업을 통해 마련됐다.

미국 작곡가 앤더슨의 'Fiddle Fuddle', 'Pink Plank, Plunk'는 플루티스트 박지혜, 노신영 등이 들려준다. 독일 곡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케의 멜로디'는 이의빈이 연주한다.

로드리게즈 곡 'La Cumparsita'는 우루과이, 플라자의 'payadora'와 'Nocturna'는 브라질의 정취가 담겨 있는 노래다.

공연에 출연하는 노신영은 전남대 음악학과, 독일 뒤셀도르프 음대 등을 졸업했다. 전남대 음악학과 등에 출강 중. 전남대 음악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박지혜는 베이스플루트 앙상블 음악감독을 맡았다.

프로젝트 더 울림 단원으로 전남대 음대 및 동대학원을 수료한 신혜지 등도 무대에 오른다. 신유정, 정



치연도 출연할 예정이다.

노신영은 "플루트 솔로, 코르넷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성실성의껏 준비했다"며 "그동안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세계음악을 감상하며 힐링하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석 1만 원.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광역시 창작희곡 공모전

서구문화원 3월8일까지 접수

희곡을 통해 광주의 문화브랜드를 모색해보는 희곡 공모전이 열린다. 광주서구문화원은 제6회 광주광역시 창작희곡 공모전을 갖는다.

이번 공모 기간은 내년 3월 8일까지이며 광주의 역사와 인물을 비롯해 자연 등 광주를 콘텐츠로 하는 창작희곡 작품이 대상이다. 또한 90분 내의 연극 공연이 가능해야 하며 타 지면이나 인터넷 매체, 공연(워크숍, 줄임작품, 쇼케이스, 트리아아웃 공연 등)에 발표되지 않은 순수 창작이어야 한다.

대상에 상금 300만원, 우수상에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창작희곡 공모전 당선작은 '광주시민연극제' 참가 극단과의 연계를 통해 연극제에서 공연될 수 있다.

정인서 서구문화원장은 "이번 창작희곡 공모전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모티브로 한 서사를 담아낼 수 있는 희곡을 매개로 지역의 문화브랜드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며 광주의 인물 발굴 또는 기존의 인물을 극화하거나 광주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작품 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 서구문화원 누리집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